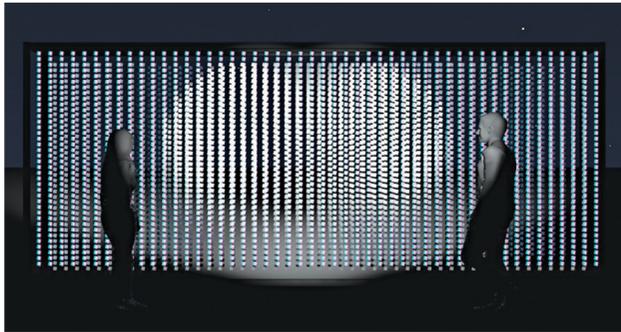




엘퍼스 작



이태현 작

빛·소리 찰랑대는 환상의 세계로 오세요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10주년 기념

내달 1~3일 밤 광주공원 일대에서 13개 작품 선보여

미디어아트로 펼쳐지는 환상의 세상. 광주문화재단이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10년을 맞아 오는 10월 1~3일 밤 7시30분부터 10시까지 빛고을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광주공원 일대에 빛과 소리가 찰랑대는 미디어아트의 매혹적인 세계를 연출한다.

이번 전시 주제는 '회복'이다. 코로나 19 상황을 겪으며 인간, 기술,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적 회복'을 꿈꾸고, '찰랑찰랑' 내려앉은 빛과 소리로 빛고을시민

문화관과 광주공원 일대를 밝히게 된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8개월 동안 '회복'이라는 주제로 레지던스 입주작가들 뿐 아니라 창의력에 참여한 미디어아트 전문 장·제작자, 예비 장·제작자, 시민 장·제작자들과 함께 미디어아트 작품을 제작해 왔다. 현재 인류가 직면한 기후, 환경, 날씨, 코로나19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이를 함께 해결하는 공동의 의지를 담았다.

본 행사인 미디어아트 레지던스 10주년 기념 프로젝트에는 ▲10기 레지던스 입주작가 강수지, 김은경, 이뿌리, 이태현 ▲미디어아트 신규콘텐츠개발 김용원, 엘퍼스(LPERS:조민선, 소은명, 최유환, 박주홍, 장영석), 이현민, 이성웅 ▲미디어아트 창의력 전문·예비장작 프로젝트 이조흠, 김성주, 려은, 류필립, 설박, 윤준영, 조선대학교예비장제작자 학생 9명 ▲시민장제작 프로젝트 최용재, 김재철, 김수연, 강세빈 등 일반시민과 전남대학교 시민참여작가 김은호, 이라연, 박유미, 여예강 등 총 35명이 참여해 13개 작품을 선보인다.

전시는 기존 미디어아트 특화공간을 광주공원 일대로 확장해 코로나 시대 안전한 관람 환경을 조성했다.

부대행사로 도스트 투어와 버스킹 공연도 개최된다.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등록이 필수이며 인원 제한이 있다. 개막식은 10월 1일 오후 7시 30분에 개최될 예정이며 광주문화재단 TV에서 온라인으로 송출된다.

오는 10월 7일에는 '회복 가능한 도시: 지속가능성에서 메타버스까지'라는 주제로 미디어아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기후, 날씨, 환경 등 도시가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행사는 이프랜드 메타버스 회의실,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진행된다. 온라인 사전 등록은 10월 15일까지며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연수 기자

변치 않는 사랑의 꽃 '맨드라미'

신안 옛 병풍분교서 전시회
김지원·안윤모 등 9명 작품

1004석 신안군 병풍도 옛 병풍분교장에서 병풍도 맨드라미 축제를 기해 오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변치 않는 사랑의 꽃, 맨드라미' 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는 김우성, 김중준, 김지원, 박동신, 박미화, 안윤모, 안혜경, 우용민, 최석은 등 작가 9명의 신안군 소장 작품 31점이 전시된다.

병풍도의 풍경과 맨드라미의 특징을 현장에서 가벼운 필치로 직접 그린 드로잉 작품부터 평생을 맨드라미에 전념한 박동신 작가의 신비로운 작품, 국내외에 맨드라미작가로 널리 알려진 김지원 작가의 대작과 박수근미술상을 수상한 박미화 작가까지 다채롭고 수준 높은 회화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 기간 중 전시작가가 주민들에게 직접 전시를 안내하고 주민들과 커뮤니티 활동도 준비하고 있다.

전시가 열리는 병풍도에는 10월이면 맨드라미가 장관을 이룬다. 산호빛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피처럼 붉은 맨드라미가



최석은 작 '꽃과 여인'

온 섬에 피어있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이다.

병풍도에서는 섬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자색 소금을 만들고자 자발적으로 맨드라미를 심고 가꾸어 왔는데, 주민들이 심은 맨드라미는 매년 가을이 오면 병풍도를 붉게 물들이고 있다. 신안군에서는 10월 1일부터 10일간 온라인을 중심으로 맨드라미 랜선축제가 열린다. /이연수 기자

미술품 대여 활성화 홍보전시·이벤트

전남문화재단 'Rush N Art' 전

30일부터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전남문화재단 예술작품 대여사업 렌트사업 미술품 공모에 선정된 강영자, 김지현, 김선미, 심은경, 장복수, 최근일, 홍정순 등 7명의 작가의 전시가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선보인다.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Rush N Art' 전시 개최된다.

작가들은 모두 전남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로 이번 전시에는 38점의 작품들은 서양화, 한국화 등 일상에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회화 작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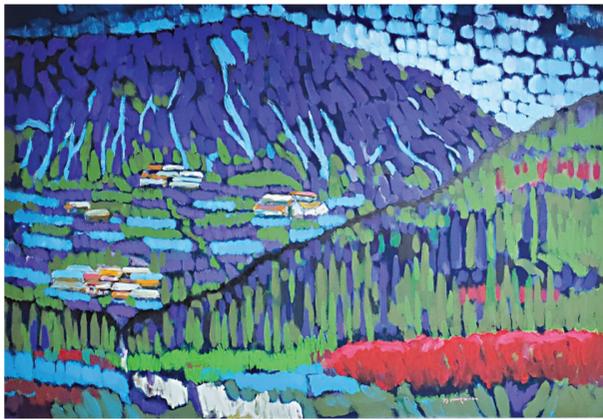
재단은 이번 전시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작가들의 작품을 기획전시나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여해주고 작품가의 0.5~1.5%의 금액을 작가에게 지급해 창작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홍보를 위한 전시연계 이벤트도 다양하게 진행된다. 사전예약을 통해 전시장을 방문한 고객 선착순 100명에게는 도록과 함께 작품이미지를 직접 그려 넣어 만들 수 있는 'DIY 무드등'을 제공한 다.

미술작품 대여 활성화를 위해 '1인 1작품 1개월 무료대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시기간 중 작품대여를 신청하는 경우 작품의 운송부터 설치까지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전시된 작품은 남도사이버갤러리(www.namdogallery.or.kr)를 통해서



강영자 작 '수만리 광경'

대여 또는 구매할 수 있으며, 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400여점의 다양한 작품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출 대표이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전남 작가들의 작품을 널리 알리고 미술작품 공유문화를 확대해 지역예술가와 함께 상생하는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비대면 릴레이 북토크 '광주면면'

내일 지역서점 '책과 생활'서 진행
'모모는 철부지' 장상은 작가 출연

올해 마지막 비대면 릴레이 북토크 '광주면면'이 29일 오후 7시 동구 장동서점 '책과 생활'에서 진행된다.

'광주면면'은 광주문화재단이 '광주문화자산구축사업'으로 기획한 비대면 릴레이 북토크 행사다. 지난 6월부터 지역 책방 '파종모종(대표 양지애)'이 주축이 돼 리브앤프리(대표 윤섫별), 동네책방송(대표 이진숙), 사이시옷(대표 김지연), 책과생활(대표 신현창) 등 총 5개의 지역 책방과 함께 했다.

이번 주제 도서는 지난 5월 지역 책방 '책과생활'이 출간한 '모모는 철부지: 전일방송 대학가요제의 기억'이다.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최유준 교수와 프리랜서 방송작가로 활동 중인 장상은 작가가 공동 저술했다. 해당 책자는 1978년부터 3년간 짧고 강렬했던 '전일방송 대학가요제'에

대한 추억을 담은 내용이다.

이날 북토크는 장상은 작가가 출연해 당시 전국을 강타했던 광주발 히트곡들을 소개하고, 당시 주류음악과는 다른 모습으로 인기를 얻었던 로컬 대중문화의 '오래된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계획이다.

'릴레이북토크'는 유튜브 생중계로 누구나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 해당 책방에서 북토크 주제 도서의 북커버 한정판을 구매하면 책방별 1권씩 무작위로 '도서교환권'이 끼워져 있어 해당 책방에서 판매되는 책과 교환할 수 있는 소소한 이벤트도 마련된다.

한정판 도서는 해당 '릴레이북토크'가 있는 주간(9.27.-10.3.)에 판매되며, 박성완 작가의 회화작품 '금남로'로 제작된 북커버가 장착되어 있다. /이연수 기자

종합철거 전문업체 **삼도산업개발**

원칙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믿음을 드리는 기업

건축공사업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

석면 해체 제거업

안전시설물설치 해체 공사

시설 관리

쇼핑센터 빌딩 아파트경비관리

입주 청소

외벽 청소 소독 왁스 작업

삼도산업개발(주) 삼도환경개발(주)
TEL. 062-944-9388, 944-9386